

 국토교통부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19. 6. 12.(수) 총 7매(본문5)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남영우, 사무관 최대경, 주무관 임은숙 • ☎ (044) 201-3755, 3761, 3765	
보 도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산업의 미래를 제시한다...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 운영

- ◆ 12일부터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 운영
- ◆ 증강현실(AR)기반 건축정보 검색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및 건축통합포털 구축
- ◆ 건축데이터 품질·기술수준 향상 및 관련 법·제도 개선

□ 앞으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주변 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건축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대국민 서비스	두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었으나 위치검색이 어려웠으며, 힘들게 찾아간 인근상가 화장실은 폐쇄되어 있었다.	AR기반 건축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개방화장실 위치 등 건축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하여 정보 수정이 가능해진다.
건축주	건축주 B씨는 건축허가 진행상황이 궁금하였으나 관련 홈페이지 검색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막상 접속한 홈페이지는 Active-X 등 다수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고 본인인증 절차가 복잡하여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건축 통합포털을 통해 모든 건축 관련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Active-X 등 이용 불편사항이 제거되어 이용이 편리해진다. 또한, 모바일로 허가 진행상황 조회 및 관련 민원접수가 가능해지고, 진행상황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건축 행정 지원	지자체 공무원 C씨는 항상 해당 공사장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종이문서에 결과를 작성한 후 사무실에 돌아와 같은 내용을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했다.	건축현장 업무 시 모바일을 통하여 해당 현장의 건축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현장에서 조사결과도 즉시 입력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산업 정보	연구자 D씨는 과거 건축정보를 분석하고 싶었으나 도면정보는 획득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보 누락·오류 등이 많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정제 과정이 필요했다.	입력데이터 오류검증 시스템 도입 등으로 건축정보를 믿고 사용할 수 있고, 활용 가치가 높은 도면 등의 건축정보는 공개되어 피난경로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미래의 건축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이하 혁신 TF)” 를 구성하고, 6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TF팀장 : 김상문 건축정책관

참여기관 : AURI, LH, 한국감정원, 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기관 협회, 30명 관련 전문가 참여

○ 이번 혁신TF에서는 건축정보가 ‘제대로 생성’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개선, 정보공개, 정보활용 창업지원 등 다양한 시스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 그간, 세움터 등 건축정보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투명한 온라인 건축행정을 실현('18년 전자처리율 98.5%)했을 뿐 아니라, 평균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60일→28.7일, ' 17년)시켰다.

* 세움터,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민간개방시스템

○ 또한, 건축물대장으로 대표되는 건축관련 원천정보 생산을 통해 안전취약 건축물 대상 선정, 건설경기 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산업을 지원하는 등의 운영 성과가 있었다.

□ 그러나, 현행 건축정보 시스템은 서비스가 시스템별로 분산·제공되고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접근해야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 (세움터) 건축민원, 대장발급, 인허가현황 / (생애이력) 건축물점검, 공개공지점검 (건물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녹색건축인증 / (민간개방) 수요자 요청통계 등

○ 또한, 데이터 오류 등의 이유로 건축정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고,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3D도면·VR기술을 활용한 가상공간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기술 접목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 이번 혁신TF 가동을 계기로 국토부는 건축정보 시스템 이용 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제거하고, 신기술과 접목하여 건축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

- 건축산업 측면에서도 건축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품질 향상과 정보개방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혁신TF의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AR기반 건축정보 검색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콘텐츠 기획'분과)

- 건축물 생활 편의 및 안전 정보 등을 AR*기반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검색서비스 구축 관련 시범사업 추진

-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추진을 통해 건축관련 모바일 특화 정보를 발굴하고, 모바일 열람서비스 등도 단계별 확대추진

<건축정보 AR 검색서비스(시안)>



2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HUB 구축(서비스 기획'분과)

- 건축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HUB(가칭)'를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축물 현황관리 종합상황판(dash-board) 구축 및 정보허브 역할 강화 추진

※ 각종 재해발생 및 피해정보, 건물 노후도 등 융·복합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예측

③ 클라우드 기반 전국 통합 세움터 구축 추진(‘데이터품질 개선’분과)

- 245개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운영·관리체계로 전환

- 재구축 시 국민입장에서 Active-X 등 접근 불편사항을 제거하고, 전자결재 연동 등으로 복잡한 건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



④ 건축데이터 고도화(‘데이터품질 개선’ 및 ‘제도개선’ 분과)

- 도면작성 표준 마련 등을 통해 건축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활용한 오류 자가진단 등을 통하여 데이터 품질 개선 추진

- 또한,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도면 등의 건축정보를 공개하고, 정보활용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건축정보 산업 생태계 육성 추진

< 필수 입력도면 표준(예) >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 관련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건축의 미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축 정보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사용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대경 사무관(☎ 044-201-40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주요 논의과제(안) ⇨ 그간 2차례 관계기관·이용자 등 회의를 통해 도출

분과	개선과제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 등 건축데이터 <u>개방 수준</u> 및 입력서식(PDF, DWG 등) 결정 * 현행 정보시스템 관련 법·제도 분석 · 용도변경 등 건축물 <u>현황도 관련 제도 개선</u> · 작성서식과 법령 상 용어 일치
서비스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건축HUB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u> · 세움터, 생애이력, 에너지 등 기존 시스템별 역할 재편 · <u>원패스 인증(가칭) 서비스 적용 방안 마련</u> · Active-X 제거, 전자결재 연동 등 국민 불편사항 개선 · 건축물 현황 및 안전관리 <u>종합상황판(Dash-board) 구성</u>
콘텐츠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R기반 건축정보 조회서비스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u> · <u>신규 서비스 발굴</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관계자 자격정보, 건축자재 및 인증정보, 설계공모 등 ·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u>창업지원 방안</u> · 현장감리 수준 고도화(부실 시공 및 감리 예방) · 건축물 유지점검, 위반건축물 단속, 건축참여자 검증 등 <u>건축현장 행정지원</u>
데이터 품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대장 오류 수정, 입력 등이 가능한 <u>정비 환류체계</u> 마련 · 건축물대장 상 지번정보와 지적정보 일치 추진 · 건축물ID 체계 방안 마련 및 관련 시스템 연계 · 건축물 <u>현황도 및 입체적 용도관리 표준 마련</u> · 딥러닝 기반 도면비교 시스템 구축 등 <u>R&D 수요 발굴</u>

※ TF 논의를 통해 과제 추가발굴 예정

□ T/F팀 구성(안)



- **총괄** : 건축정책관(단장), 건축정책과장(간사), 건축정책관 실무자(4,5급)
- **분과** : 제도개선(건축정책과장), 서비스기획(AURI), 콘텐츠기획(한국감정원), 데이터 품질개선(LH)
- **자문위원 후보(안)**
 - 학 계 : 남양희(이화여대), 문근중(계명대)
 - 연구계 : 유명찬(건설기술연구원), 김동한(국토연구원)
 - 산업계 : 유준호(건축사협회), 정미라(한국ESRI)